



자동화설비 투자로 급성장 이룩

신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할 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해 있는 금양화학(주)은 1979년에 설립된 그라비아 인쇄잉크 전문제조 업체이다. 현 박애숙 사장의 부군이 창립한 금양화학(주)은 초기 2~3명의 인원으로 성수동에 40평의 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며 여러 번의 이전을 거치면서 지금의 공장을 세우는데 이르렀다.

주생산품목으로는 나일론필름과 PET필름용 잉크, Al-Foil용 잉크, BOPP잉크 및 전사잉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의 그라비아 잉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인쇄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는 OP제, Heat-Seal제, 접착제 등도 생산하고 있다.

금양화학(주)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론 및 PET필름용 잉크는 2액 반응형 잉크로서 인쇄적성은 물론 후가공성 등이 뛰어나며 잔류용제 문제에 있어서도 양호하다. 금양화학(주)의 매출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품목은 롯데제과, 대상그룹 등 다수 업체의 주요생산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다.



◀ 본사앞에 모인 금양화학(주) 임직원(우측 세번째가 박애숙 사장).



▲ 생산공장내부전경

세제용 PE & PP 보틀의 전사용 잉크로 적용되고 있는 TRAS 잉크는 금양화학(주)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유제품이다.

이 잉크는 현재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로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잉크제품은 보편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생산업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섞여있다는 부분을 차별화하여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특허출원을 획득한 금양화학(주)은 더 나은 제품개발을 위한 보완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금양화학(주)은 전사용 잉크 적용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TRAS 잉크를 보완하고 있는 동시에 범용잉크를 개발하고 있다. 1억으로 모든 제품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잉크의 제조는 현재

2개업체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용잉크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외국회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을 하거나 일본의 잉크제품을 가져다 테스트해 성공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양화학(주)의 경우는 순수 우리나라 기술만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물론 외국과 합작하여 개발해낸 제품보다는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 국산기술만을 가지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금양화학(주) 박애숙 사장은 아직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양화학(주)의 신제품들은 중소기업으로는 드



▲ 연구개발실 전경

물게 갖추어진 연구개발실에서 탄생하고 있다.

개발된 잉크제품을 이용하여 인쇄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간이인쇄기와 고속믹서기, 잔류용제 체크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금양화학(주)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용성잉크에 대한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친화적 문제가 업계 전반에 걸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인식의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업체는 몇 안되고 있는 업계 실정에서 이제는 잉크제조업체 및 관련기계 제조업체, 수요자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소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 옥내 저장소, 옥외저장소, 위험물 관리자 등을 두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금양화학(주)이 안산 현 공장으로 이전해 오면서 가장 신경을 써서 시설을 갖춘 부분이라고 한다. 위험물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위험물관리자를 따로 두고 있으며 옥외는 지

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용제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생산현장 안의 조명등은 화재위험에서도 꺼지지 않는 방폭등을 설치하여 소방법 전반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이제까지 영세한 규모로 회사운영을 하다보니 솔직히 소방법 관련사항들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공장을 이전해 오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1억원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방법 위반 때문에 골치아플 일은 없습니다”라며 박 사장은 후련함을 내비쳤다.

재래식 생산공정을 탈피하여 대부분 자동화를 이루므로써 제품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금양화학(주)은 지하용제탱크 4EA, 수지용해조 4EA 등을 갖추어 자동라인으로 연결하여 시간절약과 더불어 생산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지중저울을 이용한 계량과, 자동포장기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비해 생산용기에 닥터를 설치, 증발유기용제를 집진, 흡착탑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개선은 물론 대기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양화학(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0여명 정도이다. 예전에 비해 절반이상이 줄어든 인원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생산량을 내고있는 금양화학(주)의 비결은 바로 전 생산공정의 자동화이다.

회사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자동화를 이루기 위한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IMF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38%라는 높은 신장세를 이룩하였다. 앞으

일관된 품질관리 최우선 강조



◀ 박애숙 대표이사

포장업계의 많지 않은 여성경영인 중의 한사람인 박애숙 사장. 그녀는 경영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평범한 주부같은 모습이다.

88년 부군이자 금양화학의 창업자인 고 김영작 사장의 갑작스런 작고로 인해 경영에 뛰어들게 된지 벌써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박 사장은 경영초기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업체 담당자를 만나는 일이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막상 찾아가면 문전박대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때의 당황스러움을 잊지 못해 금양화학을 찾아오는 어떤 이를 막론하고 친절하게 대하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고 한다.

박 사장은 현재 안산 서부공단 여성경영인협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아직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업계의 상황 속에서 좀더 큰 힘을 실어보고자 만들게 된 이 모임은 여성경영자 서로간의 힘든 부분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3회째에 접어든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에 대한 욕심도 내비치는 박 사장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내년에는 꼭 한번 수상해 보고 싶다”라는 말로 앞으로 성실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은 덧붙였다.

로도 계속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인 금양화학(주)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월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아닌 체계적인 경영으로 새로운 모습의 금양화학(주)을 꾀하고 있는 박 사장은 “이제까진 그간의 부채를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설비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회사를 이만큼 키워준 직원들의 몫을 챙겨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원복지문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난 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만큼 내실을 키워오고 있는 금양화학(주)은 앞으로 전사인크와 범용인크분야의 최고위치에 오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처음과 끝마음이 늘 한결같도록 노력하자는 경영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양화학(주)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협력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

이선경 기자